



1 디자이너 톰 디슨 2 Scent Candle Snuffer, Scent London Collector Candle Lid On.

SEOUL

Welcome! 톰 디슨

분더숍 청담에 첫 라이프스타일 팝업 스토어가 오픈했다. 주인공은 톰 디슨(Tom Dixon). 다시 태어나도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이 영국 신사는 군더더기 없는 정갈한 디자인으로 전 세계 팬을 거느린 인터스트리얼 디자인의 제왕이다. 지금 분더숍 청담은 그의 영혼이 깃든 조명과 가구, 캔들, 키친용품으로 가득하다. 특히 단독으로 선보이는 뉴 리미티드 에디션은 영국의 역사를 대변하는 구리와 벽돌 소재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으로, 이중 'The Scent London collector Candle'은 구리 도금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캔들 케이스에 텀스 강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과 공원에 핀 크로커스 꽃 내음 등 런던의 정취를 듬뿍 담아 소장가치를 높였다. 이번 팝업 스토어 오픈으로 취향 좋은 남자의 집에 놀러 가고 싶은 욕망이 어느 정도 해소된 기분이 든다.

editor 박은아 add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60길 21 분더숍 청담
tel 02-2056-1234 web http://www.boontheshop.com

NOW
WHAT'S HOT



WASHINGTON D.C.

'Wonder' Renwick Gallery

오직 윌리엄 코코란(William Corcoran)의 아트 컬렉션을 위해 디자인된 미국 최초의 아트 뮤지엄 빌딩인 렌윅 갤러리(Renwick Gallery)가 2년여 동안의 레노베이션을 마치고 지난 11월 13일에 공개됐다. 1874년 오픈 당시 '미국의 루브르'라 불렸고, 현재까지 스미소니언 빌딩 중 세 번째로 오래된 건물이다. 이번 재오픈을 기념해 'Wonder'라는 테마 아래 9명의 컨템퍼러리 아티스트의 전시가 열렸다. 이번 전시는 새롭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었을 때의 놀라운 순간과 우리가 어떻게 아트를 경험하는지에 대한 연관성을 이야기한다. 작가 제니퍼 앵거스, 가브리엘 다위 등은 전통적인 방식과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대형 설치작을 선보였다. 타이어, 실, 곤충, 나뭇가지, 그물망, 유리, LED 조명 등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재료를 이용해 친근함에서 오는 경외감을 불러일으켜 작품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writing 김용빈(뉴욕 통신원) add 1700 Pennsylvania Avenue Northwest, Washington, DC 20006 tel (1)202-633-7970 web http://renwick.americanart.si.edu



1 Leo Villareal, Volume, 2015 2 Gabriel Dawe, Plexus A1, 2015 3 4 John Grade, Middle Fork, 2015, John Grade, Middle Fork, 2015 5 Chakaia Booker, Anonymous Donor, 2015 6 Jennifer Angus, In the Midnight Garden, 2015





SINGAPORE

싱가포르의 가장 핫한 부티크 호텔, 배거본드

호텔 배거본드(Hotel Vagabond)는 최근 싱가포르에 오픈한 부티크 호텔 중 가장 '핫'하다. 프랑스의 건축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자크 가르시아(Jacques Garcia)가 디자인한 첫 아시아 호텔로 오픈 전부터 큰 이슈가 됐다. 아르데코 건물을 복원해 만든 배거본드는 로열 스위트룸 비롯해 41개의 객실을 갖췄다. 칵테일 바를 포함한 배거본드 살롱과 셰프 고든 램지(Gordon Ramsay)의 프로테제 드루 노선트(Drew Nocente)가 이끄는 레스토랑 '피프스 쿼터(5th Quarter)'는 하루가 다르게 인기가 치솟는 중. 두 개의 아틀리에를 통해 작가, 화가, 행위예술가들의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writing** 정재훈(파리 통신원) **add** Hotel Vagabond, 39 Syed Alwi Road, Singapore, 207630 **tel** (65)6291-6677 **web** www.hotelvagabondsingapore.com

SEOUL

아시아 최초 '메종 바카라 서울' 오픈

250년 전통의 크리스탈 공예의 선구자 바카라가 아시아의 첫 번째 메종으로 서울을 선택했다. 수세기 동안 쌓아온 바카라의 장인정신은 실내 건축가 전시형이 디자인한 '메종 바카라 서울'을 통해 재현된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규모로 모던한 외관과 서울의 역사를 보여주는 성곽이 바카라를 아름답게 드리울 예정. 12월 3일 오픈을 기념하기 위해 1896년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가 특별 주문했던 높이 4미터의 장엄한 스탠딩 샹들리에가 특별 전시된다. 바카라의 영롱한 빛이 서울 밤을 가득히 물들일 듯. **editor** 박은아 **add** 서울시 용산구 소월로 70



WORLDWIDE

NOW
editor 박은아



MILANO

랄프 로렌의 은밀한 이탈리아 궁전

랄프 로렌이 이탈리아 밀라노에 프라이빗 럭셔리 클럽 팔라초 랄프 로렌(Palazzo Ralph Lauren)을 오픈했다. 랄프 로렌이 처음 시도하는 이 색다른 콘셉트의 멤버십 프라이빗 클럽은 2016 S/S 밀라노 패션위크 기간에 오픈했고, 당시 쇼에 초대된 게스트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밀라노의 유서 깊은 건물인 카사 캄파니니(Casa Campanini) 안에 약 1150m²(350여 평) 규모로 자리하고 있으며 격조 높은 서비스도 갖췄다. 여유롭고 프라이빗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셰프가 준비해주는 음식을 테라스에서 즐기는 것 또한 가능하다. 이곳은 랄프 로렌 VIP 고객들의 휴식 공간으로 쓰이며 다양한 프라이빗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카페와 바, 레스토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숭을 운영해온 랄프 로렌이기에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writing** 정재훈(파리 통신원) **add** Palazzo Ralph Lauren, 27 Via San Barnaba, Milano



PARIS

앙리에트

파리의 고블랭(Gobelins)에 부티크 호텔 앙리에트 리브 고슈(Henriette Rive Gauche)가 오픈했다. 1950년대의 콘솔, 빈티지 패브릭 등 레트로풍 퍼니처에 모던한 인테리어가 어우러진 곳이다. 각기 다른 개성을 담은 심플한 32개의 객실은 내 집에 머무는 듯한 안락함을 선사한다. **writing** 정재훈(파리 통신원) **add** Henriette Rive Gauche, 9 Rue des

Gobelins, 75013 Paris **tel** (33)1-47-07-26-90 **web** www.hotelhenriette.com

WORLDWIDE
NOW
editor 박은아

NEW YORK

Sadelle's

지난 9월, 미국의 메이저 푸드 그룹이 야심차게 선보인 애피타이징 원더랜드, Sadelle's가 뉴욕 소호에 문을 열었다. 애피타이징이란 오래전부터 동유럽 유대인들이 차가운 애피타이저로 식사를 시작한 데서 유래된 식문화다. 유대인들은 고기류와 유제품을 함께 먹거나 판매할 수 없었기에 생선과 유제품을 파는 곳을 'Appetizing Store'라 부르게 되었는데 이 전통을 이어 받아 베이커리와 애피타이징 섹션을 메인으로 한 숨을 오픈한 것. 뉴욕에서 손꼽히는 마스터 베이커가 만든 베이글과 롤케이크, 쿠키, 감자 팬케이크를 선보이며 디저트 외에도 거대한 크기의 'Smoked Fish Tower' 등 비스트로 메뉴도 맛볼 수 있다. **writing** 정용은(런던 통신원) **add** 463 West Broadway, New York **tel** (1)212-776-4926



Dagger (kard) with European Head, ca. 1620~25 (hilt), 1629~36 (blade), North India, watered steel blade, inlaid with gold; jade hilt, The Al-Thani Collection.

LONDON

인도 보석 문화의 진수, 알타니 컬렉션

런던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Victoria & Albert Museum)에서 인디아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17세기 인도 무굴 왕조의 보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알타니 컬렉션(The Al Thani Collection)의 일부를 공개한다. 알타니 가문은 유서 깊은 인도의 최고급 보석만 수집하는 거물급 컬렉터로 이번 전시에서는 무굴 왕조의 왕족 행사에 사용되었던 진귀한 보석 100여 점을 선보인다. 하이라이트는 나와나가르(Nawanagar) 지역의 군주 마하라자(Maharaja)를 위해 제작된 다이아몬드가 박힌 터번 고정용 보석과 타지마할을 만든 무굴제국의 5대 황제 샤 자한(Shah Jahan)의 옥으로 디자인한 단검이다. 전시는 2016년 3월 28일까지. **writing** 정용은(런던 통신원) **add** V&A Museum, Cromwell Rd, London, UK SW7 2RL **tel** (44)20-7942-2000 **web** http://www.vam.ac.uk



Ceremonial Sword, 1880~1900, South India, Hyderabad, Steel blade; gold hilt, inlaid with diamonds, rubies, and emeralds, with applied silver wire, The Al-Thani Collection.



Marta Minujin, Payment of the Argentine Foreign Debt to Andy Warhol with corn, The Latin American Gold, 1985/2011, Color photographs, 92.4x99.7cm each.



MIAMI

Art Basel

지난해 7만여 명의 관객이 찾았던 아트 바젤이 12월 3일 마이애미 사우스 비치에서 열린다. 전 세계 267개의 갤러리가 참여하고 4000여 명의 아티스트들이 페인팅, 조각, 설치, 영상 등을 선보이는 아트 페스티벌! 올해는 갤러리, 퍼블릭 아트, 영상 외에 5개의 섹터로 나누어 전시된다. 'Kabinett'에서는 갤러리들이 특별히 큐레이팅한 테마 그룹전과 신인 솔로 쇼를, 'Survey'에서는 세대를 아우르는 아티스트들의 전시를 다룬다. 메이저 출판사들과 아티스트들이 협업해 완성된 작품들은 'Edition'에서 볼 수 있으며, 'Nova'에서는 아티스트의 작업실에서 막 잉태한 최근 작업을 전시했다. 'Positions' 섹션은 전 세계에서 모인 다재다능한 작가들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큐레이터, 평론가, 컬렉터들에게 소개하는 자리. 한편 대형 설치작과 필름 영상, 퍼포먼스는 마이애미 해변가와 콜린스 공원에서 만날 수 있어, 아름다운 경치와 아트에 흠뻑 빠져볼 수 있다. **writing** 김용빈(뉴욕 통신원) **add** 1901 Convention Center Drive, Miami Beach, FL 33139 **web** www.artbasel.com/miami-beach

1 Joseph Kosuth, Installation view 'Texts for nothing' Samuel Beckett, in play, 2010. Photo: Daniele Nalesso; Courtesy the artist and the gallery **2** Nari Ward, Swing Low, 2015. Photo: Elisabeth Bernstein; Courtesy the artist and Lehmann Maupin, New York and Hong Kong

WORLDWIDE
NOW
editor
박은아

NEW YORK

Everyday Inday

28세의 젊은 사업가 바수 라트남(Basu Ratnam)이 지난 8월에 오픈한 캐주얼 인도 레스토랑을 오픈했다. 우연히 요식업계 큰손이자 '장 조르주 폰게리히텐(Jean Georges Vongerichten)'의 파트너인 필 수아레즈(Phil Suarez)에게 레스토랑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다 수아레즈가 자발적으로 투자하게 되면서 오픈하게 되었다고. 'Inday'는 'India Everyday'의 준말로 균형 잡힌 식단과 이국적인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런치 레스토랑을 콘셉트로 한다. 지역의 농장에서 재배한 신선한 제철 식자재로 만든 인도 가정식에 캘리포니아 스타일을 접목한 메뉴를 선보이며, 힙한 지역인 맨해튼 노마드에 위치한 레스토랑답게 인테리어도 매력적이다.

writing 김용빈(뉴욕 통신원) **add** 1133 Broadway, New York **tel** (1)917-521-5021 **web** <http://indaynyc.com>





LONDON

레스토랑에 온 예술

런던 버클리 스퀘어에 등장한 럭셔리 레스토랑 '섹시피시(Sexyfish)'가 화제다. 일본 레스토랑 '다니엘 산'에서 실력을 쌓은 셰프가 시푸드 메뉴를 선보이고, 무엇보다 눈이 호강하는 인테리어는 총 1500만 파운드(한화 약 253억원)가 투자된 것이라고,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레스토랑에 거대한 피시 램프 설치작을 세웠고, 데미안 허스트는 동으로 제작한 인어 조각상을 바의 양 끝에 장식했다. 190석 규모의 다이닝룸 천장은 패션 디렉터 마이클 로버츠가 디자인했다. **writing** 정용은(런던 통신원) **add** Sexyfish, Berkeley Square House, Berkeley Square, London, UK, W1J 6BR **tel** (44)20-3764-2000

WORLDWIDE
NOW
editor 박은아

NEW YORK

뉴욕이 사랑하는 서점 리졸리의 귀환

뉴욕을 배경으로 한 영화 <폴링 인 러브>(1987)에서 로버트 드 니로와 메릴 스트립이 데이트를 즐기던 정감 어린 서점 리졸리(Rizzoli)는 작년 4월, 맨해튼 미드타운 개발 붐과 함께 문을 닫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가장 힙한 지역으로 꼽히는 플랫 아이언 근처의 노매드(Nomad) 지역에 다시 컴백한 것! 이전 매장의 인테리어 못지않은 클래식한 아름다움으로 뉴욕인들의 큰 환영을 받고 있다. **writing** 정재훈(파리 통신원) **add** Rizzoli, 1133 Broadway, New York, NY 10010 **tel** (1)212-759-2424 **web** www.rizzolibookstore.com



PARIS

상젤리제의 살아 있는 전설 푸케의 새로운 탄생

1899년 탄생 이후 에디트 피아프, 장 콕토, 샤를 아즈나부르 같은 여러 아티스트들은 물론 프랑스 대통령들도 즐겨 찾아 명성 높은 상젤리제의 고급 레스토랑 '푸케(Fouquet's)'가 미술랭 스타 셰프 피에르 가니에르(Pierre Gagnaire)와 손잡고 새로운 탄생을 선언했다. 푸케는 최근 들어 화려한 명성에 비해 메뉴의 구성이 밋밋하다는 평을 받아왔는데, 피에르 가니에르가 푸케의 시그니처 메뉴인 대구 메를랑 콜베르를 비롯해 32개의 메뉴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해 선보이며 재기에 나섰다. **writing** 정재훈(파리 통신원) **add** Fouquet's, 99 Avenue des Champs-Élysées, 75008 Paris **tel** (33)1-40-69-60-50 **web** www.fouquets.fr

ENGLAND

영국항공의 NEW 퍼스트 클래스

영국항공의 새로운 기종인 787-9 드림라이너의 새로운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공개됐다. 기존 BA 기종에 14개의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배치된 것에 비해, 이번 드림라이너는 20피트나 더 커졌지만 단 8개 좌석만 배치해 훨씬 인락해졌다. 퍼스트 클래스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발걸음으로 사용하는 등받이 없는 쿠션 의자와 눈높이에 위치한 개인 로커, 슈트 보관함 등 다양한 수납공간도 장점. 이 퍼스트 클래스의 가격은 아부다비행이 2546파운드(한화 약 450만원), 무스카트 행이 2878 파운드(약 520만원)로 책정됐다. **writing** 정용은(런던 통신원) **add** British Airways Plc, Waterside, PO Box 365, Harmondsworth, UB7 0GB **tel** (44)191-4907901 **web** www.britishairways.com





LONDON

찰스와 레이 임스의 회고전

20세기 디자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손꼽히는 부부 디자이너 찰스와 레이 임스(Charles and Ray Eames)의 회고전이 런던 바비칸 센터(Barbican Centre)에서 열린다. 아이코닉한 임스 চে어로 유명한 이들의 이름 앞엔 가구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그래픽 디자이너, 제품 디자이너, 건축가, 아티스트 등 수많은 수식어가 자리한다. 그만큼 그들이 여러 분야에 남겨놓은 훌륭한 유산이 많다는 이야기. 특히 임스 부부가 '실험실(Laboratory)'이라고 부르던 '임스 오피스(Eames Office)'에서 40년 가까이 해온 고민과 실험들은 단순한 디자인 그 이상이다. 그들은 어떻게 '디자인적 접근'으로 우리 일상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탐구했고, 이 분명한 의지는 그들이 다양한 방법의 툴(tool)을 이용해 디자인하고, 또 미디어를 이용해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이번 전시는 그들이 만든 유명한 가구와 부부의 개인적 컬렉션들 그리고 그들의 디자인 철학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서류 자료들을 비롯해 총 380여 점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전시는

2016년 2월 14일까지, **writing** 정용은(런던 통신원)
add Barbican Centre, Silk St., London, UK, EC2Y 8DS **tel** (44)20-7638-4141 **web** www.barbican.org.uk



SYDNEY

미식가들이 선택한 부티크 호텔, 디 올드 클레어

인적이 드물던 시드니 치펜데일(Chippendale) 지역이 급부상하고 있다. 치펜데일 센트럴 파크 옆에 오픈한 부티크 호텔 '디 올드 클레어(The Old Clare)'로 미식가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 미술랭 스타 셰프인 제이슨 애서튼(Jason Atherton)과 노마(Noma) 출신의 샘 밀러(Sam Miller), 모모푸쿠(Momofuku) 출신의 클레이튼 웰스(Clayton Wells)가 이끄는 각기 다른 개성의 레스토랑 세 곳 때문이다. 61개 객실과 루프톱 수영장을 갖추고 있으며 내년엔 스파도 오픈할 예정. **writing** 정재훈(파리 통신원) **add** The Old Clare Hotel, 1 Kensington St, Chippendale NSW 2008 **tel** (61)2-8277-8277

WORLDWIDE

NOW
 editor 박은아

LONDON

뉴제너레이션 블랙캡

런던 블랙캡 제조사인 더 런던 택시 컴퍼니(The London Taxi Company)가 하이브리드 블랙캡을 선보였다. TX5로 이름붙은 6인승 전용 프로토타입 택시 천장에 파노라마 유리 루프를 장착했는데, 블랙캡으로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WiFi 서비스와 전자제품 충전도 차 내에서 가능하다. 볼보와 포드의 디자이너였던 피트 호버리(Pete Horbury)가 1958년 Austin FX4 택시에서 영감받아 외관을 디자인했고, 디젤 엔진 대신에 전기와 47통 무연휘발유 엔진을 장착해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TX5는 시범 운행을 거쳐 201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writing 정용은(런던 통신원) **tel** (44)24-7657-2000 **web** http://london-taix.co.uk